

# 50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 Chapter

눅 16:1~13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 90장 (예수 닳기 원해)

### 오늘 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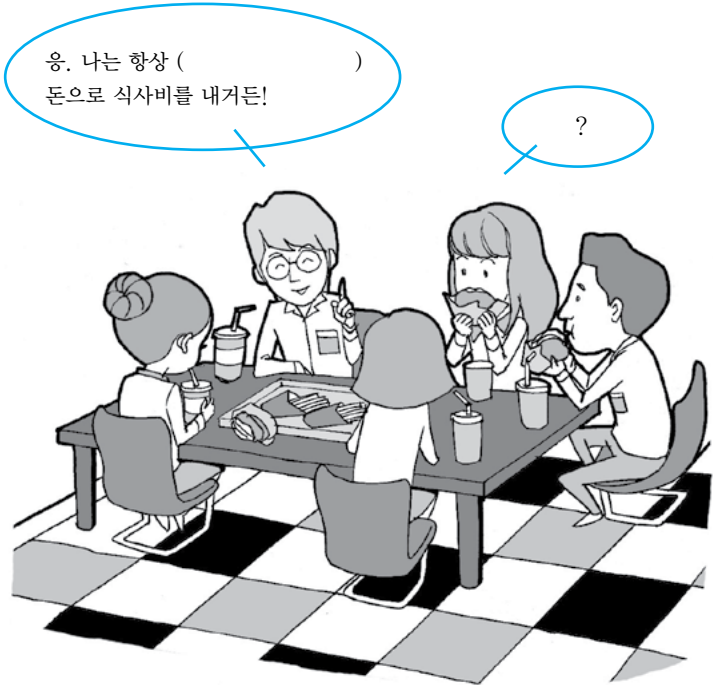
## 말씀

1.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압니다.
2.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압니다.

### 마음 열기

친구들과 모이면 항상 밥을 사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항상 싱글벙글 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어 보았습니다.

“식사비를 항상 너 혼자 내서 우리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해!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매번 식사비를 낼 수가 있지? 그것도 항상 즐거워하면서?”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 말씀을 이해하기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함으로 직분을 빼앗기게 될 청지기는 쫓겨난 후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던 청지기는 아직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반감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쫓겨난 후를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이는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래를 용의주도하게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듯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하물며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젊음이나 재능, 시간, 물질, 생명 등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불의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될까요?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눅 16:9)

And I say to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unrighteous mammon, that when you fail, they may receive you into an everlasting home (Lk 16:9)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딤후 6:17~19)

(약 5:1~6)

(잠 11:24~26)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은 후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주인이 청지기에게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주로 무얼 하는데 돈을 사용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돈을 사용하는 습관과 이방인이 돈을 사용하는 습관이 같은지, 다른지, 혹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기록해 보세요.
3. 위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청지기 사무를 계속 맡기실 것으로 생각됩니까?
4. 오늘부터 청지기 사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나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주님이 맡기신 소유를 적극 사용하고 싶습니까? 또 주님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 누가복음 16장 11~12절을 읽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세상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내세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삽시다. 또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여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볼 수 없는 하나님



완벽한 나의 눈

길~고 짙은  
속눈썹!



맑은 눈동자!



좌우 시력  
1.5, 1.5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눈썰미!

이렇게 완벽한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기, 마음, 세포, 원자, 전파 등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세상  
에 존재하는 것의 22%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역시 살아계시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답전 6:16)

## 올바른 재물 관리의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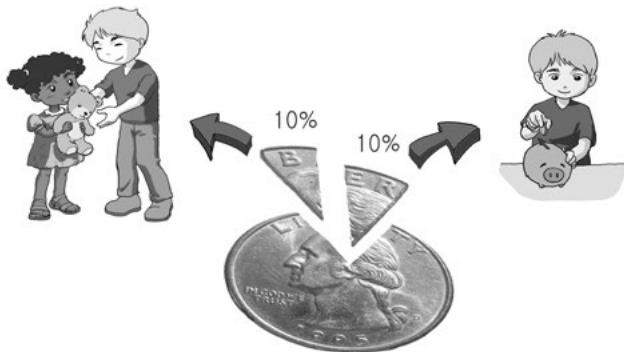
맨하탄 은행의 총재였으며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데이비드 록펠러는 자신이 어렸을 때에 돈과 관련하여 받은 훈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1주일에 25센트씩을 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0원 정도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 5000원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금전출납부를 조사하여 만약 수입과 지출이 엉터리이고, 돈을 쓴 명목이 나쁘면 5센트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돈을 잘 사용했다면 5센트를 보너스로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용돈이 30센트도 되었다가 20센트도 되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돈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첫째로 10%는 예금해라. 그리고 다른 10%는 따로 떼어서 반드시 자신 사업을 해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러한 훈련이 훗날 부자가 되었을 때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딤펴전 6:17)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